

용재총화[慵齋叢話]

성현이 쓴 조선시대 잡록(雜錄)의 대명사

1525년(중종 20) ~ 미상



1 개요

『용재총화』는 조선의 야사, 제도, 풍속 및 지리, 음악, 그림 등 각종 문물과 문화를 담고 있으며, 인물의 일화나 시화(詩話), 우스운 이야기를 기록한 소화(笑話), 소설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는 잡록류(雜錄類)의 저작이다. 조선 초기 학자인 성현(成俔)이 저술하였는데 정확한 저작 시기는 알 수 없다. 『용재총화』의 용재(慵齋)는 성현의 호이며, 총화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은 것이라는 뜻이다. 즉 성현이 모은 여러 가지 이야기란 의미이다. 『용재총화』는 1525년(중종 20) 9월 경주부윤 황필이 발문을 써, 이 시기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9년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에서 조선시대 패관 문학서인 『대동야승(大東野乘)』을 간행하였는데 여기에 수록되어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2 성현, 『용재총화』를 쓰다

성현은 창녕(昌寧) 성씨로, 자는 경숙(馨叔), 호는 용재(慵齋), 허백당(虛白堂), 부휴자(浮休子)이다. 증조부는 예조판서를 지낸 성석연(成石琬)으로, 그는 조선 개국에 참여했던 성석린(成石璘)의 동생이다. 아버지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낸 성엄조(成念祖)이다. 성현은 1459년(세조 5) 진사시에 급제하고 3년 뒤인 1462년(세조 8)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를 거쳐 대교(待敎), 사록(司錄)에 올랐으며, 1470년(성조 1) 예문관 검관이 되었다. 또한 사헌부 지평, 홍문관 부제학, 대사간, 성균관 대사성, 형조참판, 강원도관찰사, 경기도관찰사, 예조판서 등 국가의 주요 요직을 역임하였다. 예조판서로 재임 시 궁중의 연회와 각종 행사를 주관하면서 이와 관련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면서 성균관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이야기들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차례의 중국 사행과 『동국여지승람』의 개정 주도 또한 중국에 대한 견문 확대와 조선의 각종 지리, 문화, 예술, 역사를 알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관직 생활의 다양한 경험과 함께 성현 집안의 박학과 잡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그로 하여금 잡록을 서술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게 하였다. 성현의 큰 형인 성임(成任)은 중국의 설화, 소설집인 『태평광기(太平廣記)』 500권을 50권으로 축약한 『태평광기상절(太平廣記詳節)』을 서술했으며, 『태평통재(太平通載)』와 같은 잡록을 지었다. 둘째 형인 성간(成侃) 역시 『태평광기』를 읽으며, 다양한 독서를 통해 박학다식한 유학자가 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집안의 잡록에 대한 관심은 성현이 『용재총화』와 같은 다양한 장르의 글을 모은 저서를 쓸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성현은 『용재총화』 외에도 『허백당집(虛白堂集)』, 『악학궤범(樂學軌範)』, 『주의패설(奏議稗說)』, 『경륜대궐(經綸大軌)』, 『부휴자담론(浮休子談論)』 등 방대한 규모의 저술을 지었다.

『용재총화』는 총화라는 서명에서 알 수 있듯이 10권에 300편이 넘는 필기와 패설이 수록되어 있다. 전체의 내용은 야승(野乘), 시화(詩話), 소화(笑話), 일화, 신이담(神異談), 애정담, 잡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야승은 조선의 역대 문장가들과 학문에 대한 논의, 도읍 및 산천, 궁중 및 관변 풍속, 민간 풍속, 제도에 대한 사실적 기록이다. 시화는 시와 관련된 인물의 일화가 소개되었다. 소화는 해학이나 풍자로 사대부나 하층민의 우스운 이야기, 남을 속이는 사기담, 외설 등이다. 일화는 기예의 인물에 관한 이야기나 작가 자신의 주변인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신이담은 귀신이나 점복, 꿈에 관한 내용이며, 애정담은 지방 수령이나 사대부들의 기생과의 사랑을 주제로 하였다. 잡론은 작가의 견해를 담은 단편적인 내용이다.

『용재총화』의 1권과 2권은 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많다. 1권의 시작은 경학의 계통과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고 서예, 회화, 음악 등 조선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 언급하였다. 3권에서는 고려시대의 인물인 강감찬(姜邯贊), 신돈(辛旽), 조운흘(趙云屹), 최영(崔瑩), 이방실(李芳實), 충선왕(忠宣王) 등에 관한 이야기가 서술되었으며, 4권, 6권, 7권에는 시화(詩話)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5권, 8권, 9권, 10권에서 인물에 관한 일화, 우스운 이야기인 소화가 주로 서술되었다.

이러한 『용재총화』의 정확한 저작 시기는 알 수 없다. 성현이 1504년(연산군 10)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술된 것으로 파악된다. 『용재총화』는 1524년 아들 성세창(成世昌)의 부탁으로 경주부윤 황필이 출판을 일임하고 발문을 써 1525년(중종 20) 9월 간행되었다. [관련사료](#)

3 조선의 문화, 예술을 논하다

『용재총화』에서는 문장, 글씨, 그림, 음악, 지리, 문학 등 조선의 문화, 예술을 다양하게 서술하였다. 성현은 최치원(崔致遠), 김부식(金富軾), 이규보(李奎報), 이인로(李仁老), 이곡(李穀), 정몽주(鄭夢周), 정도전(鄭道傳) 등과 같은 역대 문사들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는 최치원은 시구에는 능숙하나 뜻이 정밀하지 못하다고 했으며, 김부식은 글은 풍부하나 화려하지 않다고 평했다. 이색은 시와 글에 모두 뛰어나나 비루하고 소략하며, 권근(權近)과 변계량(卞季良)은 이색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세종대 집현전(集賢殿)에 있던 신숙주(申叔舟), 박팽년(朴彭年), 성삼문(成三問), 유성원(柳誠源), 이개(李塏), 하위지(河緯地)의 문장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서예가로는 김생(金生)의 경우 글씨를 잘 써서 아무리 작은 글자도 정밀하게 썼다고 평가하였다. 성석린의 글씨도 진밀(縝密, 곱고 세밀함)했다고 평하였으며, 안평대군의 글씨는 능름하여 날아 움직이는 것 같다고 평했다. 화가로는 공민왕(恭愍王)을 높게 평가했으며, 안견(安堅)의 산수화와 최경(崔涇)의 인물화는 신묘한 경지에 들었다고 하였다. 특히 당대 사람들이 안견의 그림을 금옥(金玉)처럼 사랑하여 보관했다고 하였다. [관련사료](#)

그는 성종조의 간행서적들과 자신의 저술서, 역대의 문장가 및 이들의 저작들도 소개하였다. 아울러 훈민정음의 기본체제와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한 세종의 지혜로움도 찬양하였다.

한편 조선의 문화와 중국의 문화를 비교하였다. 조선과 중국의 문자, 조선인과 중국인의 성품과 특성, 식문화(食文化), 군졸의 수, 조선인의 사치스러움과 참람됨 등을 비교하였다. [관련사료](#) 아울러 일본과 북방 야인의 풍속과 문화를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며, 일본과 여진의 사신을 접대하면서 조선의 연회가 풍성하고 음악이 끊이지 않는 점을 화려하게 묘사하였다.

역대 도읍지와 한양의 지리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특히 서울의 경치 좋은 곳으로 삼청동(三清洞)을 첫째로 꼽고, 인왕동(仁王洞)이 다음이며, 쌍계동(雙溪洞), 백운동(白雲洞), 청학동(靑鶴洞)이 그 다음이라고 하며, 이들 지역의 특징들을 설명하였다. 도성 밖 놀 만한 곳으로는 장의사(藏義寺) 앞 계곡을 뽑았다. [관련사료](#) 이 밖에 전국의 온천과 각 제단의 위치, 기능도 서술하였으며, 삼포의 문제점과 대마도 정벌에 관해서도 서술하였다.

4 조선의 여러 풍속과 놀이를 담다

『용재총화』에는 조선의 각종 제도와 문물, 다채로운 풍속들이 서술되었다. 먼저 관제(官制)에 관한 서술에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승정원, 성균관, 예조, 장악원, 사헌부, 사간원, 집현전 등의 업무와 관습, 행사 등을 언급하였다. 그 예로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의 출퇴근 시 상하관원이 맞이하고 보내는 절차나 승정원 하인들이 은패(銀牌)를 차고 자주색 옷을 입는 등의 기록이 있다. 원각사(圓覺寺)의 유래와 장악원으로의 변천과정도 서술하였으며, 승과(僧科)제도의 절차와 폐단이나 예조의 변천도 서술하였다.

조선 초 과거제도의 시행과정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시관(試官)의 선정, 과거 부정에 관한 사항, 과거 시험장의 모습, 과거 시험지의 채점방식 등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새로 문과에 등과한 신입자들의 면신례(免新禮) 과정도 자세히 표현하였다. 면신례가 생기게 된 이유로는 호사(豪士)의 기를 꺾고 상하의 구별을 엄격히 하여 규칙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처음으로 관직에 나가는 것을 허참(許參)이라 하고 10여 일을 지나 구관(舊官)과 자리를 같이하는 것을 면신(免新)이라 하여 구관과 신관의 구분이 매우 분명했다고 설명하였다.

당시에 행해지는 풍습과 놀이도 서술하였다. 처용희(處容戲)의 연원과 과정 및 절차, 관화(觀火)의 예에 대한 모습과 방법, 기우제의 절차 등을 서술하였다. 민간의 세시 행사와 음식도 월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선달 그믐날 악귀를 몰아내는 풍습, 정월 초하루의 세배(歲拜), 효로(梟廬, 주사위놀이의 일종) 놀이, 보름날 약밥 만들기, 3월 3일 답청절(踏靑節), 4월 8일 연등(煙燈), 5월 5일 단오(端午)날 창포로 머리감기와 그네놀이, 6월 15일 유두(流頭)날의 수단병(水團餅, 물단자떡) 만들기, 중추(中秋)의 달구경, 중양절의 높은 데 오르기, 동지(冬至)의 팔죽, 경신일(庚申日)의 밤 새우기 등이다. [관련사료](#)

5 각종 인물과 조야(朝野)의 다양한 이야기를 해학으로 풀어내다

『용재총화』에는 다채로운 인물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먼저 왕, 대군의 이야기로는 안평대군(安平大君)의 풍류, 양녕대군(讓寧大君)의 방탕한 생활과 이래(李來)와의 대립, 세종과 집현전 관원들과의 이야기, 세조와 양녕대군의 재치담, 세조와 최지(崔池)가 경회루 후원에서 만난 이야기 등이 서술되었다.

사대부의 이야기로는 홍익성(洪益成)이 사신을 보낼 때의 청렴한 태도,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세조를 도와 큰 부를 축적한 홍윤성(洪允成)의 권세, 기생과 술, 음악을 좋아한 유방효(柳方孝)의 풍류, 거짓으로 악관이 된 박씨(朴氏)에 대한 비판 등이 서술되었다. [관련사료](#) 또한 이숙번(李叔蕃), 변계량, 황희(黃喜)의 인품에 대한 서술, 성석린으로 인해 살아난 맹사성(孟思誠)·유관(柳觀)·백귀린(白貴麟)·손순효(孫舜孝)의 청렴함 등도 서술되었다.

한편, 『용재총화』에는 사대부나 하층민들의 심심풀이 이야기나 우스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담아냈다. 사대부의 심심풀이 이야기로는 90세인 민대생(閔大生)에게 조카들이 백년 동안 오래살기를 기원하자 민대생이 그렇다면 몇 년 밖에 못사는 것이라고 꾸짖는 이야기나 점쟁이 장득운

(張得云)이 안효례(安孝禮)를 속인 이야기, 과부·장군·승려의 삼각관계와 사랑, 계집종을 희롱한 한경신(韓敬愼)의 이야기 등이 서술되었다.

또한 당시 사회가 기생을 동반한 향락 문화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호색담이 다수 등장하였다. 전목(全穆)과 기생 금란(金蘭)의 사랑과 배신, 나주기생 자운(紫雲)이 손영숙(孫永叔)과의 잠자리에 등급을 매겨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 박생(朴生)이 기생을 탐하다가 모두 퇴짜 받은 이야기 등이 유쾌하게 서술되었다. 이 밖에 도화서의 홍천기(洪天起)라는 여자를 좋아해 추국을 받으면서도 곁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는 서거정(徐居正)의 일화 등도 있다.

[관련사료](#)

민간의 웃긴 이야기로는 상좌(上座)가 사승(師僧)을 속이거나 장님을 골탕 먹이는 이야기, 처녀가 매파에게 여러 부류의 남성들을 소개받는데 성욕이 뛰어난 인물을 가장 흡족하게 여겼다는 일화, 바람을 핀 아내가 위기를 모면하는 이야기 등이 있다.

기이한 이야기도 수록되었다. 홍재상(洪宰相)이 여승으로 변신한 구렁이에 홀려 죽는 이야기, 이두(李杜)가 귀신에 홀려 죽는 이야기, [관련사료](#) 성현이 꿈에서 본 네 가지가 현실로 드러나는 이야기, 대선사(大禪師)가 죽은 뒤 뱀으로 변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이야기 [관련사료](#) 등이 다.